

---

## The Process of Life-Destruction, Excretion, and Protection of Sense Organ: Buddhist Interpretation about Poop<sup>\*</sup>

Byungkee Pa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Buddhism also often presupposes poop as dirty. It is necessary to suppress sexual desire by imagining the poop in the stomach of the other woman in the early Buddhist practice method, or to store it separately because it is dirty, although it is necessary like a “dry poop stick” that appears as a hot topic of Zen Buddhism. The bathroom is called Haewooso, which means “a place to relieve anxiety,” but the management office was avoided.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looking at poop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s opened in the practice of the initial Buddhist practice, the Sasumcheo. The first is the body in this practice of making the four objects of recognition, including body, feeling, mind, and truth. Among what happens in the body, the act of lying on the poo should also be used as an object of recognition. This process can be named as the guardian of the superintendent, and we can protect the supervision by noticing the entire process of eating, digesting, and sending it out as poop. When this becomes possible, we can recognize together that poop itself cannot be separated from life itself, and that is also the starting point for solving the problem. This perception of Buddhism's poop can be the basis for looking at the problems caused by flush toilets, which have become symbols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and seeking solutions. This culture of excrement, which makes people regard what comes out of their bodies as just dirty and unpleasant, is not sustainable, so only by linking the process of life and death with awareness of the link between food and poop and seeking active solutions can the way to ensure its sustainability be opened.

Key words : Life-destruction, excrement, poop, protection of the sense organ, flush toilet culture, sustainability

---

---

<sup>\*</sup>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CRC: NRF-2015R1A5A7037825)

**Received** November 21, 2021 **Revised** December 13,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Byungkee Pak,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kapak15@knue.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생명의 과정과 배설, 감각의 수호: 똥에 관한 불교적 독해\*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요 약

불교 또한 똥을 더러운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불교 수행법에서 상대 여성의 뺨속에 들어있는 똥을 상상하는 것으로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거나, 선불교의 화두로 등장하는 ‘마른 똥 막대기’처럼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러워서 따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다.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의미의 해우소(解憂所)라고 부르지만 그 관리소임은 기피 대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기불교 수행법인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는 똥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몸과 느낌, 마음, 진리 등 넷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 이 수행에서 첫 번째는 몸이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똥을 누는 행위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감각(感官)의 수호로 이름붙일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소화시켜 똥으로 내보내는 전 과정을 알아차림으로써 감각을 수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똥 자체가 우리 자신을 물론 삶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곧 문제해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교의 똥에 관한 인식은 근대 서구문명의 상징처럼 된 수세식 화장실로 인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저 더럽과 불쾌한 것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이 배설 문화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생멸(生滅)의 과정을 음식과 똥의 연결고리에 관한 인식을 연결지으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그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주제어 : 생멸(生滅), 배설, 똥, 감각의 수호, 수세식 화장실 문화, 지속가능성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CRC: NRF- 2015R1A5A7037825).

## I. 머리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졌고, 깨끗함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혐오하는 감각적 차원의 가치판단에도 익숙해져 있다. 생명체로서 인간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이런 가치판단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뇌의 어떤 부분에 새겨져 후대로 유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만하다. 인간의 뇌가 생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뇌과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도 부합한다(배럿, 2021: 서문).

문제는 그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인식이 실제의 그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일 수 있다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세균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과 동일시하고, 더러운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하곤 한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정의는 그러나 자신의 장 속에 수많은 미생물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공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실제 상황과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노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도 서구 근대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수세식 화장실의 보편화를 통해 오줌과 똥과의 거리 유지를 문명적인 삶의 주요 척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자신이 먹는 것과 싸는 것의 거리를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넓히고 말았다.

모든 생명체는 분리되지 않는 외부로 전제로 투입과 산출이라는 두 통로를 전제로 하는 소화(消化)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명체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소멸로 접어들게 된다. 불교는 이 자연스런 과정에 관한 관찰이 지니는 의미에 주목해온 종교이자 철학이다. 나와 분리되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시켜 다시 그 외부로 내보내는 생명의 체계(system)에 관한 관찰을 진리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상정해왔다는 것이다.

이 관찰은 그 과정과의 거리를 전제로 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붓다는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공기와 음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호흡과 감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곧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아야 하지만, 자신의 몸이 생존하기 위한 요건인 공기와 음식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의 중도(中道)를 동시에 강조했다.

똥은 오줌과 함께 공기와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를 시킨 후에 내보내는 산출의 과정에 속하는 결과물이다. 산출의 과정은 당연히 투입의 과정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고, 동시에 중간에 소화라는 생명체의 자연스런 움직임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 이 흐름을 관찰하는 일은 우리 삶의 과정을 관찰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똥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삶 자체의 흐름을 관찰하는 일과도 분리될 수 없다. 똥에 관한 불교적

독해의 한 시도인 이 작은 글을 통해서 논자는 그런 흐름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흐름에 관한 관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삶에 임하는 불교적 지혜에도 주목해보고자 한다. 불교 자체가 단순한 이론적 탐색에 그치기보다 실천과의 미분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실천철학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II. 생멸(生滅)의 과정으로서 삶과 똥, 해우소

### 1. 생멸의 과정으로서 삶

우리 생명체는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판정받는다.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은 살아있음에서 죽어있음으로 넘어가는 구비이고, 그 숨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햇빛과 공기, 물, 음식 등의 섭취와 소화에 기반한 기운(氣運) 또는 에너지(energy)이다. 그 흐름의 중심은 산소로 표현되는 공기이지만, 그 공기를 들이킬 수 있는 기운이 없다면 들숨과 날숨 사이의 흐름이 끊어져 죽음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모든 생명은 생겨나서 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궤적을 그리다가 소멸해간다. 이 과정을 불교 개념으로 바꾸면 생멸(生滅)의 과정이 되고, 그 과정에 관한 성찰이 붓다 깨달음의 근간이 된다.

“무엇이든 생겨나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전제성 역주, 2014, 556)

초기경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진리는 붓다의 깨달음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제자들이나 낯선 바라문들이 찾아와 당신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한결같이 내놓는 답이 바로 ‘모든 생겨나는 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다.’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채택된 것이 ‘생멸(生滅)’이다. 이 생멸은 진여(眞如)와 짝을 이루어 중생과 붓다, 일상과 깨달음이라는 삶의 두 차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생멸의 과정은 다른 한편 들숨으로 상징되는 무언가를 들이마시고 먹는 과정과 날숨으로 상징되는 순환과 소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생물학에 뿌리를 둔 체계이론에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낸 것이기도 한데, 그 핵심 속성은 흐름이다. 흐르지 못하고 멈추어 버리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의 끝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생명체가 지니게 된 생멸의 과정과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유의하면서 일상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생명체에게 주어진 실존적 과제이다.

투입의 주요 요소는 음식과 공기, 물 등이고, 산출의 핵심 요소는 땀과 눈물, 오줌, 똥 등이다. 잘 먹고 소화시켜서 얻은 기운으로 일상의 과업을 수행하고, 그 남은 것들은 땀과 오줌, 똥으로 잘 내보내는 과정이 ‘좋은 삶’의 기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조금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이 될 것이다. 붓다는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생명체로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고, 동시에 그 과정이 타자와의 의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그 타자 속에는 다른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무생물이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생명의 과정은 공기와 물, 음식이 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땀과 오줌, 똥으로 나오는 과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타자와의 의존 속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곧 바람직한 수행자이고, 그는 깨달은 자이다.

“끝없는 윤회와 한 쌍인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를 분별하여, 티끌을 떠나 더러움 없이 청정하게 태어남을 부순 자라면 그는 깨달은 님이다.”(전재성 역주, 2015, 22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구절은 바로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를 분별함’이다. 생명의 과정은 태어남과 살아감,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그 죽음은 다시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죽음과 태어남의 그 모든 허구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관한 통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깨침에서 가능한 목표 지점이다. 그런데 죽음과 태어남의 과정은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먹고 소화시켜 내보내는 과정이다. 생애 전반에 걸친 태어남과 죽음은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깨치는 일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섭취하는 음식물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자연물에 관한 관심과 함께, 소화를 거쳐 내보내는 배설물에 관한 관심은 ‘죽음과 태어남의 허구를 분별함’의 출발점이 된다.

## 2. 불교에서 바라보는 똥과 해우소(解憂所)

“동사(東司), 즉 화장실 여기 7당의 하나로 위치는 승당 밑에 있다. ..... 동사 소임을 정두(淨頭) 또는 지정(持淨)이라고 하는데, 정두는 총림의 소임 가운데서도 하급 소임이다. 그래서 승려들이 가장 맡기 싫어하는 소임 가운데 하나다. 설두 화상과 같은 경우엔 그 일을 자청했는데, 간화선의 대성자 대해 선사로 9개월이나 자청해서 정두 소임을 맡았다. 하심(下心) 공부는 뒷간 청소만한 것이 없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분별심을 버리는 정두 소임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윤창화, 2017: 242-243)

“한때 어떤 수행승이 뱀에게 물렸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대정화제, 즉 똥물과 오줌, 재, 진흙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 ..... 그런데 다른 때에 어떤 수행승이 독을 마셨고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승들이여, 똥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전재성 역주, 2014: 527)

“자제하고 남이 보시한 것을 먹는 자에게  
때맞추어 공경하여 죽을 배풀면  
열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목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힘이네.  
그리고 이것에서 변제가 생겨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고 기운을 조절하고  
배를 정화하고 음식을 소화하니  
이 약이 행복하신 님께서 칭찬한 음식이다.”(전재성 역주, 2015: 550)

첫 번째 인용에서는 우리 선원(禪院)의 뿌리를 이루는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 화장실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율장의 인용으로는 약으로 사용된 똥과 죽의 사례를 알 수 있다. 이런 인용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가 생명의 과정에 관한 관찰을 토대로 삼아 지나치지 않는 양의 음식과 꼭 필요한 약의 섭취를 권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수행자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하는 안거(安居)를 위해 동사(東司)라는 화장실을 수행공간과 가까운 곳에 마련해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정두(淨頭)를 내켜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함께 확인하게 된다.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해우소(解憂所)라고 불려온 우리 절의 풍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 그런 거리감은 오히려 고통의 감내라는 과정을 불려와 수행자가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절집에 들어가면 마당 쓸고 땀감을 마련하고 해우소 청소를 하게 했던 전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이때 동자승에게는 그런 수행의 과정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과정을 떠맡는 주체적인 수행과는 차이가 있다.

똥 자체는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똥은 ‘똥’이라는 말 자체의 사용을 억제할 정도의 금기이다. 최근에 아동용 교육자료에서는 똥이 자신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능하면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초기 경전을 비롯한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화두로 등장하는 ‘똥 묻은 막대기’의 경우에도 똥을 치우는 막대기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문화상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화상은 이렇게 말했다.  
 ‘똥 묻은 막대기야’”(오현 역해, 2007: 130)

이 공간에 관한 해석은 쉽지 않고 또 열린 답을 전제로 해야 하는 화두이지만, 대체로 부처와 조사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의 ‘초불월조(超佛越祖)’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부처나 조사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도달해야 할 전범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의미의 해석이다(오현 역해, 2007: 133).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경지가 모든 절대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논의는 이런 선불교적 해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똥 묻은 막대기’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은 일상어의 더럽고 하찮은 막대기라는 의미 이외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부처도 더러운 똥이 묻어 말라비틀어진 막대기에 불과한 것일 수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점에서 ‘더러운 똥’이라는 일상어의 맥락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똥과 오줌을 해독제로 허용하고 있는 율장의 용례이다. 우리 전통에서도 매를 맞은 사람에게 똥물을 처방해왔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용례에서 똥과 오줌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들은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약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독이나 장독(杖毒)에 대한 극약으로 똥과 오줌이 선택되었고, 그 실제 과학적 성과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처방되어 사용되어온 역사를 불교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전통의 똥물 처방도 불교의 유입과 관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까지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를 똥과 오줌을 바라보는 불교의 일반적 관점을 이끌어내는 전거로 삼을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불교에서도 똥과 오줌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관점이다. 다만 극약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분뇨(糞尿)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 부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똥에 관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경시는 모든 문화권과 대체로 공유해온 것이어서 특별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똥은 오줌과 함께 생명의 과정을 상징하는 두 축, 즉 먹는 것과 싸는 것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생명의 과정에 관한 통찰을 강조해온 불교 수행론의 관점에서 똥이 지닐 수 있는 의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런 주목을 통해 불교 일반의 똥에 관한 경시를 다른 차원에

서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Ⅲ. 배설 과정에 관한 감각(感官)의 수호로서 사념처(四念處) 수행

#### 1. 배설과정에서 감각의 수호

“판하와 아라따와 라가를 보고 성적 접촉에 대한 욕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두 발 조차 그것을 건드리길 원하지 않는다.” ..... 관찰하면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성찰하면서 나는 내면의 적멸을 본 것이다.(전제성 역주, 2015: 318, 밑줄은 논자의 것이다.)

이 인용에서 우리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수행은 관찰과 성찰이라는 두 차원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관찰할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실천적 지혜가 요청되고, 성찰할 때는 내면의 붓다를 통해 적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런데 성적 매력이 있는 한 여자를 관찰할 때, 그 배 안에 있는 ‘똥과 오줌’을 볼 수 있으면 두 발로도 건드리고 싶지 않을 만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된다.

한 사람의 뱃속에 있는 똥과 오줌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적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이 지점에서 불교가 그 똥과 오줌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실적 차원의 관찰로 그냥 인간의 주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똥과 오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똥과 오줌이 더럽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세상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뱃속에 있는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지만, 만약 그 똥과 오줌이 더럽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적인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두 번째 해석은 붓다 스스로도 똥과 오줌은 더럽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세상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세상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감수해야 하지만, 맥락 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성욕이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는 그 다음 문장, 즉 성찰로 내면의 적멸을 볼 수 있다는 문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맥락이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 위로 솟아 가지줄기에 핀 연꽃이 물이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 성자의 삶을 사는 님은 적멸에 관해 말할 뿐 탐욕을 여의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도 세상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여러 지각에서 떠나면 속박이 없고, 지혜로써 해탈하면 미혹이 없다.”(전제성 역주, 2015: 320-321)

곳곳에 등장하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여기서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감관의 수호를 적멸에 이르는 수행의 핵심적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고픔의 욕구에 기반한 음식물 섭취와 그 결과로서 똥과 오줌의 배설이라는 행위에 대한 붓다의 견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은 먹고 싸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은 배고픔과 배설 욕구라는 감각적 욕망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다.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고 있는 연속적 지점에 속한다. 먹는 것만 소중하고 싸는 것은 더럽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세상의 견해는 이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붓다의 입장은 올바른 관찰을 통해 내면의 적멸을 보는 수행에 맞춰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설법은 듣는 사람의 근기(根機)에 따라 다른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는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침을 설하는 붓다의 방식은 개별화 교육의 방식의 뿌리를 이루기도 한다. 평준화를 전제로 하는 학급 안에서 다른 학습능력과 여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관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감관의 수호는 생명의 과정에 대한 여여(如如)함의 자세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먹는 것과 싸는 것이 순환을 이루는 생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자이고, 그 과정은 배고픔과 뇨기(尿氣) 같은 신체적 욕구를 통해 전개된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오줌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런 삶을 이룬다. 다른 생명체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과정을 의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식과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식도 일정한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작은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인간다움의 원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 뜨면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선사(禪師)의 일상에는 ‘똥과 오줌이 마려우면 바지를 내린다.’는 과정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없는 산중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도 있다. 그 과정들을 의식하면서도 걸림이 없을 수 있다면, 이미 그는 경지에 오른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걸림없음[無碍]의 미학은 그런 점에서 화엄과 선이 공유하는 수행의 목표 지점이 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걸림없음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이다.

순환의 과정을 거부해버린 도회적 삶의 양식에서 먹는 일과 싸는 일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이 그 상징이다. 오줌만 누어도 그보다 몇 배 되는 물을 동원해 내려 보내면서 우리는 그 철저한 분리에 성공한 것이라는 만족감을 느끼는데 익숙하다. 그렇게 내려 보낸 하수는 처리장에서 약품을 동원해 처리되어 다시 우리 수도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꺼림칙하여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다. 이런 악순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실천에 옮기는 일에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감관의 수호는 일차적으로 생명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내 몸의 흐름을 관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충실히 관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흐름이 지니는 우주적 의미를 음미하는 성찰의 과정이 곧 감관수호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감관의 수호는 수행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연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붓다 시대와 비교해서 그 자연과의 격리를 전제로 영위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의미의 감관 수호에 구조적 차원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 속에서 먹는 것과 싸는 것 또한 상품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형 가게의 유기농 매장이나 백화점의 수입 화장실 용품점 같은 것들이 그 상징이다. 그런 가운데 매끄럽고 고급스런 것만을 살 수 있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는 광고성 명제가 우리 문화 전반에 스며들게 되었다. 이 문화 속에서는 똥은 물론 음식까지도 인간을 소외시키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생과 멸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먹는 것과 싸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그 둘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삼아 영위되는 우리의 일상이 위태롭고 자기파멸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속적으로 그 분리를 문화 또는 소비의 이름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감관의 수호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해서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 2. 감관의 수호 방법으로서 사념처(四念處) 수행

감관의 수호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는 당위적 명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의 문제이다. 이 두 차원은 분리될 수 없지만,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 주목해보도록 하자. 불교적 관점에서 고립된 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모두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계획과 실천이 다른 차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이런 자연스런 연결 고리는 이미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 맥락에 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

에서의 방안 모색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감관의 수호에 관한 초기불교의 지속적인 강조 중에서 오늘날 우리 맥락을 고려하여 호출해 볼 수 있는 수행법으로 사념처(四念處) 수행을 들 수 있다. 사념처 수행은 ‘감관의 수호와 제어, 자제’를 위한 붓다 자신의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감관의 수호와 청정한 삶과 감관의 제어와 자제, 이것으로 고귀한 님이 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고귀한 님이다.”(전재성 역주, 2015: 259)

“홀로 있는 데서 기쁨을 찾으라.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불린다. 그렇게 하면 사방을 비출 것이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드는 현자들의 칭찬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는 더욱 부끄러워할 줄 알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전재성 역주, 2016: 277)

이 인용을 통해 우리는 ‘감관의 수호와 홀로 있음’이라는 수행의 방법과 자세에 주목할 필요성과 마주하게 된다.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그 홀로 있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홀로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감관의 수호, 즉 제어와 자제가 곧 깨달은 자가 되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홀로 있는 상황 속에서 감관의 수호는 물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감관의 수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것이 어느 정도 확립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나 존재자들과 함께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관을 수호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수호의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의 경지까지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관의 수호에 관한 강조는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두 가지 관찰’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원리를 관찰하는 과정은 각각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관찰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관찰로 나뉜다.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나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르게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얻든가, 집착이 남아 있지 않아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전재성 역주, 2015: 279-280)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두 가지 관찰로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둘은 우리 삶의 괴로움과 그 발생 원인을 알아차리는 관찰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아차리는 관찰이다. 이 관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불교사 속에서 수행론으로 전개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과 위빠사나를 통해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간화선의 경우는 특정한 화두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 관찰을 대신하고자 하고, 위빠사나의 경우는 관찰이라는 의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제안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사념처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불교의 주된 수행법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선방에서도 개별 수행자의 자율성이 일정하게 보장되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허용되고 있고, 재가수행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위빠사나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것이 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 수행법과 북방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나 합의는 한자경의 지적과 같이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자경, 2008: 81)

이런 현실은 불교 수행 관련 논의의 이론적 차원이나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이 두 수행법 사이의 연계성과 차별성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논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관의 수효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빠사나에 집중하고자 하고, 특히 그 구체적인 내용인 사념처 수행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것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가기 위한 것이며,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四念處]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身]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 느낌[受]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 마음[心]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 법[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부지런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각목 율집, 2006: 492,497)

사념처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초기경전의 곳곳에 나오지만, 『대념처경』만큼 상세하고 분명한 설명을 하는 경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몸과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차원의 마음챙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붓다는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추세운 후에 전면에서 마음챙김을 확립하며 앉은 후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라’라고 가르치고 있다.(각목 율집, 2006: 498-499) 특히 우리 논의와 관련지어 주목할 만한 곳은 다음 구절이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각목 율집, 2006: 499, 밑줄은 논자의 것이다.)

감관의 수호는 이처럼 몸에서 시작해서 느낌, 마음, 진리[法]로 확장되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몸과 마음의 평화는 물론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열반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가 보다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하는 몸의 32가지 부위에 관한 관찰에서는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부정(不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관조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의 사례로 땀과 눈물, 콧물, 침과 함께 오줌을 들고 있다. 이 오줌은 똥과 오줌을 포함하는 분뇨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똥과 오줌을 우리 몸이 지닌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지으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으면 진리의 깨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관점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관찰의 대상에 똥과 오줌을 누는 행위가 주는 느낌과 마음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몸과 느낌, 마음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연속적인 흐름에 제대로 주목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오개(五蓋)와 오온(五蘊), 육처(六處), 칠각지(七覺支), 사성제(四聖諦) 같은 진리의 가르침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옥선은 불교윤리를 덕윤리에 가까운 것으로 전제하면서, 불교윤리가 단순히 행위의 원칙에 주목하기 보다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품의 확립까지를 목표로 삼는다고 강조한다.(\*각주 삭제) 그 성품의 확립은 구체적으로 일상의 탐진치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가능하고, 그 소멸의 방법으로 붓다가 제시한 것이 부정관과 자애, 지혜라는 것이다.(안옥선, 2010: 248-249) 그는 부정관을 주로 탐심(貪心)과 연결짓고, 자애와 지혜는 각각 진심(瞋心)과 치심(痴心)과 연결짓고 있다. 양곳따라니까야의 관련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탐진치 지멸(止滅)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하는 그의 논의에 당연히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세 마음의 그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사념처 수행의 4단계 수행은 단순한 단계적 접근의 의미를 넘어서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초기불교의 수행을 서양철학의 스토아학파의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이찬훈은 초기불교에서는 중생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 절제와 소욕지족을 권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이찬훈, 2019: 178-180). 중도(中道)의 가르침은 우리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극단적인 금욕만이 수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의 해석은 타당하다. 그는 사념처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그를 통해 우리가 마주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항상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알아차림으로써 그것들이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찬훈, 2019: 182). 몸과 느낌, 마음, 진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내외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깨침의 길을 지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 곧 사념처라

고 보고자 하는 논자의 정의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념처 수행은 감관의 수호를 위한 최선의 수행법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생활수행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멈춤과 그침[止]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그 그침을 위한 수행법으로서 삼매(三昧)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감관의 수호는 멈춤과 바라봄의 두 단계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불교의 수행은 이 두 방향의 수행법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당위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지어 일상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떠올릴 수 있다. 공교육 체제의 교육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을 전제로 감관의 수호라는 목표에 일상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훈련을 시도해볼 수 있다. 종교교육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이다. 특정 종교의 교리에 관호를 치고서도 보다 나은 정신적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종교교육이 자리매김될 수 있고, 그 노력 속에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정당한 관심과 관찰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 IV. 맺음말

우리 삶은 생멸(生滅)의 연속이다. 연기적 의존에 기대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그 죽음 또한 다른 존재자들의 생멸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멸은 우리의 삶 곳곳에 편재(遍在)한다. 그런데 이 편재 상황은 우리 자신을 그 과정 속에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흐름을 보지 못한 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일상화하면서 아귀다툼에 몰입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그 무분별한 몰입의 상황은 대체로 나와 남, 좋은 것과 싫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엄격히 분별하는 경향으로 전개된다.

일상의 전개 속에서 이러한 분별은 상(相)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내게 좋은 것과 깨끗한 것만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혐오심을 일으키면서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혐오의 대상 중에서 똥과 오줌은 나의 몸속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위상을 지닌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체로서 우리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 우선 몸속에 똥과 오줌을 저장하고 있다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뇌를 자극하는 기운, 즉 뇨

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학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요청으로 판단되지만, 논문의 초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언급으로 그칠 수밖에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에 기회를 보아 시도해보고자 한다.

기(尿氣)나 분기(糞氣)를 느끼면서 배설의 과정으로 접어든다. 만약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 자체가 곤란해지거나 중국에는 삶 자체의 종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교에서도 똥과 오줌은 일차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것은 상대 여성의 땀속에 들어있는 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마른 똥막대기’처럼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러워서 따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선원(禪院)에는 동사(東司)라는 이름의 해우소가 선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해우소를 관리하는 소임은 대체로 기피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직접적인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는 똥의 위상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에서 느낌, 마음, 진리로 이어지는 네 가지 관찰대상 중 하나인 몸에 관한 관찰에서 똥을 누는 행위는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바로 그 과정을 우리는 ‘감관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규명해 보고자 했다. 무엇을 먹고 소화 시켜 똥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붓다의 경구는 똥을 단지 더러운 것으로 분류하면서 피하고자 하는 일상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똥 자체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삶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이다.

똥에 관한 불교의 독해는 곧 붓다의 똥에 관한 독해이기도 하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기준 또는 경계는 우리 스스로 무명(無明)의 그림자 속에서 형성하여 공유하게 된 상(相)의 결과물일 뿐이다. 특히 먹는 것과 싸는 것 사이의 순환고리를 상실해버린, 이른바 서구 근대문명의 수세식 화장실 문화는 그 상이 벗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극단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저 더럽고 불쾌한 것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이 문화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면서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인간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종교는 이런 어리석음의 지속적인 악화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을까? 이 물음에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제도종교를 전제로 하면 더욱 그렇다. 절집의 해우소도 거의 수세식으로 바뀌고 있고, 교회나 성당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먹는 것과 배설물 사이의 극단적인 분리가 종교계 안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일상이 극복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망설임이 뒤따라온다.

일상과 깨달음, 중생과 붓다를 구분하지 않는 불교의 관점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일상 자체에서 출발하는 멈춤과 관찰의 수행일 것이다. 일상에 편재해 있는 어리석음의 구비들을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섭생과 배설의 과정에 관한 집중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붓다는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상을 포함하는 세상의 거센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붓다가 깨달은 이후 일정한 망설임을 거쳐 도달한 교육의 출발점이다. 똥과 오줌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공기와 햇빛, 음식 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어쩌면 상식적인 진리에 관한 주목이 붓다가 강조한 감각의 수호를 통해 가능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똥과 오줌으로 인해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로로 종교교육이 활용될 수 있고, 이때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자체가 지니는 교육적 특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각목 읍김 (2006). 『대념처경』,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야 2권, 경남: 초기불전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Translating Gakmuk (2006). *Daeneum Cheogyeong, Daebannyeolgeong, Dighanikaya* Volume 2, Gyeongnam: Early Buddhist Research Institute.
- 오현 역해 (2010). 벽암록. 서울: 불교시대사.  
(Translated in English) trans by Ohhyeon (2010). *Byeokamrok*(碧巖錄), Seoul: The Buddhist Period Press.
- \_\_\_\_\_ (2007). 무문관. 서울: 불교시대사.  
(Translated in English) trans by Ohhyeon (2007). *Mumunkwan*(無門關), Seoul: The Buddhist Period Press.
- 전재성 역주 (2015). 슛타니파타. 경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trans by Jaesung Jeon (2015). *Sutani pata*, Gyeonggi: The Korean Association od Pali Nikaya.
- \_\_\_\_\_ (2014). 마하박가-율장대품. 경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trans by Jaesung Jeon (2014). *Mahabakga-Yuljangdaepum*(律藏大品), Gyeonggi: The Korean Association od Pali Nikaya.
- 박병기 (2013).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 서울: 씨아이알.  
(Translated in English) Pak, B.K., *A Period of Meaning and Buddhist Ethics*, Seoul: CIR.
- 박이문 (2008). 자비 윤리학: 도덕철학의 근본 문제. 서울: 철학과현실사.  
(Translated in English) Pak, Y. M., *Compassion Ethics: fundamental problems of Ethics*, Seoul: Cheolhakgwaheonsil.
- 배럿, 리사 펠드먼, 변지영 읍김 (2021).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서울: 더퀘스트.  
(Translated in English) Barrett, L. F., trans. by Byun, jiyong (2021). *This unexpected brain science*, Seoul: The Quest.
- 윤창화 (2017).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서울: 민족사.  
(Translated in English) Yoon Ch, H., (2017). *The Life and Philosophy of Seonjong*(禪宗) *Temple in the Tangsong*(唐宋) *period*, Seoul: National History Press.
- 한병철, 한충수 읍김 (2017). 선불교의 철학. 서울: 이학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B. Ch., trans. by Han Chungsoo (2017). *Philosophy of Zen Buddhism*, Seoul: Lee Hak Press.
- 한병철, 이재영 읍김 (2021). 고통없는 사회. 서울: 김영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B.Ch., trans. by Lee Jaeyoung (2021). *The Society without Pain*, Seoul:

Kimyoung Press.

Lee Chanhoo (2019). Stoic School and Early Buddhist Desire and Emotion Theory, *East Asian Buddhist Culture* Vol.39, East Asian Buddhist Culture Society.

Ahn Okseon (2010). Removal of negative tendencies from Buddhist Virtue ethics,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No. 26, Korea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Han Jageoung (2008). A Study on Buddhist Practice: Samatha and Vipassanā, Sati-patthāna and Jhāna-samādhi,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No. 19, Korea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